한지 생산기술·응용제품 개발 '탄력'

한지산업지원센터,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 연구개발 공모 선정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전통문화혁신성장융합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CD/MD 인장강도 비율 90% 이상, 장섬유 50% 이상의 생분해성 섬유 혼합 한지 소재 제조공정 개발 및 플라스틱 대체 가능한 응용제품 개발'이라는 다소 긴 과제명이다.

강원대학교가 주관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 한지제조업체인 천양피앤비㈜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연구사업은 6년 동안 총 18억6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당은 이 가운데 5억598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를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 강원대학교, 천양피앤비㈜ 등 3개 기관은 지난 11월 29일 협약을 체결, 오는 2027년 6월까지 관련 사업의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고품질의 장섬유 기반 한지 제조를 위한 섬유 배향성 개선 기술, 그리고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해 한지 응용제품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고품질의 장섬유 기반 한지 제조를 위한 섬유 배향성 개선 기술은 장섬유 한지소재 제조산업 뿐 아니라 단섬유인 목재섬유를 원료로 하는 제지산업에도 모두 적용 가능해 파급력이 큰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CD/MD(가로방향/세로방향) 인장강도 90% 이상의 고품질 지류 소재는 산업용·특수용(기능성) 기본 소재로 활용 가능해 친환경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향후 활용성이 크다.

한편,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진은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기술을 융합한 CD/MD(가로방향/세로방향) 인장강도 비율 90% 이상, 장섬유 50% 이상의 우수한 강도 및 균일성을 지닌 롤(Roll) 상태로의 기계 한지 생산기술 확보, 생분해성 섬유 소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플라스틱을 대체 가능한 한지 섬유혼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연구과제는 산학연으로 각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체계를 유기적으로 잘 구성해 얻어낸 결과물"이라며 "전통소재인 닥섬유를 활용, 원천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전통한지 업계, 나아가 국가문화유산을 사업화로 전환한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순창군, 제2회 복흥 서편제 소리축제·소리대회 개최

판소리 서편제 창시자 박유전 명창 고향 복흥서 9일 진행

판소리 서편제의 창시자 박유전 명창의 고향 복흥에서 제2회 복흥 서편제 소리축제 및 소리대회가 오는 9일 순창 복흥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박유전 명창의 고향이 순창군 복흥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대회에 참여하여 판소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

박유전은 김세종·장재백 등과 같이 순창에서 배출한 빼놓을 수 없는 명창이다. 그가 구축한 서편제가 동편제 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판소리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박유전이

제1회 복흥 서편제 소리축제 모습

판소리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아울러 동편제와 서편제를 아우르는 소리 세계를 오늘날까지 전승하게 한 점도 그의 업적이다.

행사는 박유전, 이날치, 한승호로 이어진 정통 서편제의 계보를 알리는 기림제를 시작으로 이어 복흥과 담양, 함양 예술단체에서 판소리, 난타공연 등 예술 교류 행사와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판소리 소리대회(나도명창)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박창흠 복흥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서편제의 시조 박유전의 고향 복흥에서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소리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합창으로 평화·사랑·희망 전한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 11일 익산서 진행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내한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4시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갖는 것으로, 합창을 통해 평화와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프로그램은 프랑스 중세, 근대, 현대 작곡가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프랑스의 음악 정취를 흠뻑 느껴 볼 수 있다.

헨델, 슈베르트, 비발디의 클래식 명곡들과 후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장-필립 라모의 '평화로운 숲'을 비롯해 합창단의 대표곡인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Le Duo Des Chats)'를 들려줄 예정이다.

9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코러스'의 OST '너의 길을 보아라'와 더불어 성탄을 축하하는 캐럴과 추억의 샹송 메들리, 세계 민요 등 장르와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곡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국내 관객을 위한 특별 무대로 한국 민요와 가요를 부르며 잊을 수 없는 사랑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1907년에 창단되어 11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교황 비오 12세로부터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지난 1971년 첫 내한 이래 매년 전국 순회공연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우며,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을 위한 최고의 인기 공연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공연 관람 가능 연령은 8세 이상이며 공연예매, 회원할인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함께 EAT잇다' 특별전 열린다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내년 5월 14일까지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함께 EAT잇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 생활관습 중 국민들에게 친숙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식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전승성을 살펴보는 자리다. 특히 최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주체가 확대된 이후 지정된 공동체 종목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 구성은 1부 '한국 식문화의 기록', 2부 '시간을 나누다', 3부 '마음을 나누다', 4부 '함께 잇다'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세대별 거리 인터뷰와, 한 사람이 태어나 나이가 들기까지 일상 속에서 만들고 나눠 먹는 떡 등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식생활관습 속의 공동체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대형 스크린 속에서 메주와 누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연을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를 인터랙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로비에는 관람객이 직접 색칠하고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 체험과, 음식 레시피를 읽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또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서경덕 교수와 함께하는 전시 해설 영상과 전시실 가상현실(VR) 영상도 제공된다.

이번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로비전시 '겨울 그리고 봄'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23년 4월 3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로비 작은 갤러리에서 '겨울 그리고 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장미가 주는 밝음, 사랑스러움, 향기로움과 자연의 생명력과 함께 모란의 부귀와 화려함, 칸나의 존경심까지 담아낸 작품 6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평생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그려온 고상준 작가는 따스한 햇빛을 받고 있는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숙한 작품 세계를 펼쳐왔다. 그의 작품들은 장미, 모란, 칸나와 같은 아름다운 꽃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표현해 저마다의 사랑스러움과 경쾌함이 작품 너머로 배어져 나온다. /장은성 기자

국립태권도박물관, '국기원 반세기' 특별 기획전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이 국기원(원장 이동섭)과 함께 태권도의 심장 국기원 반세기 기획전시를 지난 6일부터 2023년 2월말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지난 1972년 11월 30일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한 국기원의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되었다. 국기원 소장 유물인 국기원 신축 설계도(1972년)를 비롯해 9개관 통합 이전부터 발급된 단증 및 1978년 국기원이 통합 단증 발급체계 구축 후 현재까지 발급된 단증 등 국기원과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76점의 자료가 선보인다. 특히 국기원 최초 정관(1974년)은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로 오늘 날 반세기를 맞이한 국기원에 있어 근간이 되는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개원 50주년을 맞는 국기원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훌륭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재단은 국기원 등과 함께 태권도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전문 박물관인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태권도 역사와 문화, 인물 등 총 1만여점의 유물을 통해 태권도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